

# 月報

時代の文部省 Greenburg(1983~1992)に

그루었이 들품에 “잇는것은  
풀하게도하고

主張하고 싶다 言葉이나 行

을 보는 웃는 헌정, 그러나 남에 있어서의信仰은 서서 繼業하고 全  
力을 기울였던 儒術의 大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1880  
년대의 韓文大典(한국) 고려대·진에서 산수문자로 활동  
하였던 主張한 相互尊重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보다  
이전의 藝文가 오늘의 우리 문장에서도 가끔 드나들  
하거나 畫畫이나 기사, 紙面도 우리나라 三振灰 이요 悲劇이야  
그리고 그간의 時流 一時의 이 그 雜誌의 人間에는  
不列漢批이거나 紙面도 우리나라 三振灰의 悲劇으로  
서 종종 등장하는 畫畫이나 「가! 難堪出現」 우리나라 生活  
(特有 이웃 과의) 에 있어서 護民리가 또 三振灰 이라는 가  
하나도 없으나 하느니 畫畫이다. 護民리고 하느니가 舊  
繪畫 그 어떤 畫物에 전해지지 아니고 한 사람의 畫生  
세상 하자마자 이것은 그만나 云遺失이다. 徒論 이것이  
何等의 影響도 없어. 유키려고 人間 그 허물을 기원하는 地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畫解本부가 갖기 고 있느 能력이 아니고 이를 확하는 그 生命의 機  
能에서이다. 畫解라는 것은 차운 韓文立場에 살며 살면서 생긴다. 事實상  
을 살피면 살피지도 欲意로 曲解하여 我田引水 择印 切斷을 버리느 것이다.  
그러나 그 畫解의 批評에서 오는 畫解가 아님지도 살피면 저것도 비르게  
理解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끝내 버리는 理解가 있다는 것이다. 球陽  
이것은 아울러 護民리 護民리의 畫解者의 畫解에 따라 둘리다. 畫解은 더욱 그러  
한 畫解은 人性論에서 말하는 "性說"을 球陽  
에서 벗어나면서 悲劇에서 벗어나면서 人間인 나로서는

그로 엇이든膺에 “여는것은 품하게되고 주제하고 싶다 데 일이不行動하나 하니 하니 기자리도 情意 아니 풀풀로 解解해보기는 것이다 밀다 가족경우는 것은 己己가족경우는 것인으로 그것은 言言自身의 問題인 것이다 저이 되고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차차를 차할때 純全히 그로 말미암아 愚痴의 問題의 問題를 이어서면 그를 評衡하며 創辦될것이 아니라 즐거 그 ‘자이’에서 理解해야 될것이 아니겠는가? 諸一여기서 한 犯罪看가 왔으나 하느란도 그罪의結果으로서가 아니라 그罪를犯할수 밖에 없었던 그 표현心情을 理解할수 있다 그때에는 그의心情과 出心情。 한자로에서 서로호통증이 것가 많을까? 차기를 죽이려는 무리(群)를藉하여 代魏의 이기도를 들쳤던 스페인은 그로리를들이. 그걸 서 풀로 犯罪하였던 遷女를 응선하였다(金) 예수들도 그女의心情의 問題를亟기 때문에 아득히 이전한 能度는 모두가 이웃(他者)과의關係에서이고 自己眞實에 대한 應應은 디르다 그때에는 그女의의례스가 아 무리 犯죄하였도 지나치게 錄利하지 않고는 헛된다 自信과의關係은 自己의 그벌거벗은 心情: 그것보다도 自己因底의 邪惡이 되많은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前后看間に 二律雙反而生기고 体系的統一이 되었고 한다 면 『儒子』로도 좋다 사모래로人間의 真面目로서는 그어떤 統一이나 本來、로서 生命의 모든 物象을 저일수는 없다 何如周人周에게 要善의 것은 俗俗의 賤民이 아니라 真面目을 誓護하기가 사는 生人周이 어상하다 現實은 理念의 貝金石이므로 理念은 現實의 눈(眼) 이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現實이 現實하지 않으면 거기에 根據해서 피어나를 Ideas 싹은 나무뿌리에서 자란 새싹처럼 아득히 아름다워도結果 局限, 眼의 眼, 의 眼에 수남의 말씀을 想起하면서 이웃을 보는 눈을 바르게드자 道로로 이어처럼 真實로 지을는 生活을내리고 誓護하기에 사는 現實로 끌어들자.

肯定 (yes) 或 否定 (no) 的批判

서」時代나 靑衿의 친구 異端와 不善을 打破하고 真義의 践踏를 防  
으려고 있는 欲望을 持한 하면서 言教도 사와 出을은 後世의 費解에게 謹  
路를 教示한 庫人들이 있음을 再次 認識하다 오늘의 우리 教育를 살펴  
볼때 格別 하생포들의 活躍과 電비를 把握이 要素되고 있다 보다 우  
리가 아는 삶을 理解하는 데 있어 球根과 亂世의 球根을 中心으로  
하는 韓神의 삶들은 우리 고德班 대사 論述를 褒美하는 「詩」의  
理解가도 因應하며 또 그 球根이 道學과 친노기 지연 3일이니 서우 3夜房에  
는 相當히 理由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것을 論述하는 바 없이고 그자  
체에서 韓神의 삶을 우리 閑居에 打磨하는 바를 3일이 되었으며 筆者는 아직  
는 韓神의 韓神 어느 程도 球根이라고 韓道를 수업하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것이 있으니 이 程을 부드럽게 信頼들의 心情이라든 것은 사정과 믿음이  
로 和구의 信作의 程을 新解하면서 그식품의終燒을 기다린 것이다 그  
리라 韓道의 韓端 論者の 爲에는 이것(中庄)이 매우 거슬려보이  
는 모양이며 自己庾에 미흡해 이었고 他庾은 戒獄이라고 떄를면서 程을  
舊同한 韓端를 가르쳐 所謂 及其分子로 教誨하는 무서운 罪를犯하고 있는  
것이다 일죽이 「나는 바울에게」「나는 아폴로에게」「나는 게마에게」 屬하였  
다고 하면서 紛爭하니 두 리틀에게 밤을 度까지서는 無 바울에게 774  
자 않고 오히려 늘 깨어 놔두는 편이라고 하겠는가 말이다 自私에 加擔하여 쌈  
우기 때문에 그려하여 無나니 776 나를 云謂하느 것은 韓端不合理의 일

이내 또 누가 放逐을 원을 것인지는 도직 하니금만이 헤아릴까이기  
이니 神의 欲意를 하니 聖者가 한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지간도 順然하기를 두  
려는 慮慮치않을수없는 것이다 教會는 真信徒한 사람 그 사람의 罪에서 떠나  
나님의 賓屬들의 集合体이지 總神이나 神의 聖者의 個人의 群衆가 많임  
을 할여야하며 그들로로를 카기 自身상을 하면 神의 靶매를 떠고자 애를들  
것이며 教會이 聖하 儘善의 聖略과 燭明교단회를 써지밀것이다  
信者の 犯事이 目的이 放逐解釋하고 選진대 總神도 神城이 아니거든  
그어느쪽에 屬하는것도 自由일것이나 다만 그어느쪽에 屬하거 쌔우기  
않겠다는 教會中心의 中立信徒의 信仰에 打消하고 三罪란 犯事지를 떠는것  
이다 聖徒의 사람이라도 이런일을 行爲한다고 하면 또가실리는 聖徒를  
아름파하와에게 먹게한 사람의 第二의 罪이라고 罪定지를 밖에 넣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安教會는 現在 어떤 罪置에 있드가? 去年 慶송의  
聖靈의 決定으로 聖徒側에 加擔하였다가 그동안 많은 罪折를 지나 二重最  
十名의 罪力과 請願과 堂會의 普處에 依하여 다시 中立의 罪置에 積充하게  
된로 되었으나 其後堂會의 紛爭은 그 罪置를 모르며 教會의 政治는 形害로  
한 慢境에서 부끄러운 慢境인을 教會의 一員에 남겨가고자기 罪을 가?  
이로 慢境에서 그가 빼어董才의 罪置가 아있느 그 罪置를 풀느 깨끗이 教  
人에게 사과하고 많은 慢境의 가슴에 맷이 어울린 慢를 풀어주며  
발로 聖徒들은 教會의 모든 事態를 直視하고 고 誓한 挑拂를 하여야 하며  
發起三重罪를 듣는 教會이며 그들이 俗羅加列에 教會의 紛爭과 慢害로는 자  
임을 慢解하여야 하며 一步前進하여 그들은 이제 우리 教會의 새指

# 걸찰보 材與 和 福

(三) 풀

들이 하여온 땅지 않은 賢賈가 유통시 촉 和禪生을 빼놓는다  
쓰쓰이라고 非難을 받기 세 꽈 알았디 그만치 촉生은 꾸  
죽음을 칭으로 삼고 있는 보조법한 努力들이니 모를리 하  
진만 欲稿가 德才와도 이를 占據하며 禪를 禪으로 만든다는 貢略에  
서 그의 本名은 송和禪이 아니라 以禪福인 참이 견다고 加胸은 무슨  
일거리만 생기면 두손을 잡고 食母의 福罰을 하기에 선술이 많았더  
불지지를 끌고 다니면서 하느니 놀자 세어가면서 사탕버금을 한는等  
事外부리 살림의 손씨를 誇耀하여 낙금의 期待하니 바가 를흔 父籍  
이요 現在에도 聖教院의 王廟警을 基母로 원을 랄줄 나온도 없다 그  
여기서 佛母聖教院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에 最高祖在彼(?)인  
佛母聖教院을 끌고도 가랑스러운 痕分을 한풀에 알게 되었고  
생돌의 元老뿐만 아니라 聖教院과 先老로서 全隊員의 神威를 한풀에 지  
니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瑞花女高을 거쳐 瑞大業院群를 우주로 성원으  
로 출발하신 송和禪은 아무래도 亂世를 염두에 20년간 또 하나의 감투를  
쓰지 않을수 없게 되었는지 그려면서도 둘째 미시의 神威로 神威廣보  
단은 구수한 뚝배기 범선을 풍겨주기까지 하는것은 와상하기까지 능  
하고 쓸데자리를 끌고 있지만 그 단계로는 물에 어르지 못하게 우주  
와 우울이 절을 아끼겠기도 하다는것이 故貫敦의 氏評 - 어제의 코스를  
기다리는 여전 貞를 앞에 花信을 찾고서 부끄러워(?) 범선을 끌며 나니  
동생의 모습을 不意而보게 될것이란는 告別離情의 故敦가 虛應아  
너를 모두가 바리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되면 어찌 한일이 있더라도 離散  
를 뿐이야겠다는것이 一般의 論이 고보니 이들을 그에게 하면 고업마  
를 끌랄 하고 표적이 올라가는 악센트와 함께 韓文에 著성이 들릴 (을줄것이다)

나는 대로 생각

(四) 顧

천도의 福과는 俗마의 福나니고 그것이 전  
도의 福기를 더해 주었다 서명화자는 윤리의 데  
배복령 오는 날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모르  
겠다고 했다 또 어찌 俗의 福와는 그는 국립  
교의 生도 있었고 또 평생 학자이었지만 남편  
은 우리가 부른대로 뜻간적이 있었는데 그 소리이후  
되풀이 되리라고 기다리고 봄해 울고 그늘 아래 깊숙  
못자며 빨리 놓어 나도 교회에 걸렸네 하더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로 부탁을 했었다 그나저일 맞을 때까의 그 소리은 감격에 찬 듯  
동자로 봄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가 유행을 지모를 것이다  
이렇게 한족 일도 빼지 않고 전도를 계속하는 동안 누이 녹고 푸르흐 유통  
야가 를 품았던 모내고 억울을 맞이하면서도 범족였다 계획도 있다  
그때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주민학교에서 선교사들은 선생들이 명복히  
서 천도하기엔 떠나기 좋았을 것이다 그동안 고해서 천도가 아무 시련이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출발의 의사를 드러내면서 떠나고 있었고 종족지를  
가 시자 안 사람에겐 그로 손을 려하여 어려워졌다 나 또는 서류상이랑  
해가 운동하면서 비단을 걸었지만 주린은 예술동 병설에서 화자에게 두  
리가운동을 막아면서 수피를 걸었으므로 신축을 기쁘게 것이다 또 그 보다 우  
리를 인도하는 주립이 아름다 노력을 했지만 보지 않아서 그런지  
흔도 를 걸치고 천도를 거쳤다 그에게 본 비록 전제의 월북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大.二.五.일 주월호 왔을 것이다  
같이 천도나니면 여자 선생 중에는 그 뜰을 빼개 끌리위가서 경찰을

아침에 슈퍼를 끌었다 그 뿐이며 놀드는 드물기 이제 말이 눈에 어  
린다 지금도 옛날로 예전 차에 걸친 그림과 그림의 일들이  
본인 보이 늘었고 깊은 회상에 걸친 그림과 그림의 일들이

人間白華

자 않겠고 마음의 것은 몇몇前의  
일이다 韻文體 뜯어서도 없는 詩計  
를 찾고 싶으니 그것이 걸로이라 생  
각하고 詩詩를 솔직에 걸어놓았다  
뿐자서 時時까지하고 나기야 하겠  
느냐고 말을 하니 사람도 있을리이기  
반 詩計를 사기마는데 半年이 못가서  
座上蕭長을 하느라 청법 축률을 풀었지  
다가는 황소걸음을 하느라니 이  
두려도 八聲에 없느라니에 脱帽하여  
廟母들에게 자랑하지 하였지만 이  
것이 차츰 열만통을 계법 경복하  
時間을 알려주어 대개기제를 이라고  
미에는 벼슬의 사임신을 사하는  
것이 아는가? 三公을 드리노 神父  
을 드리고 소승인을 드리면 까종까지 나쁜  
나는 大分이 아니라 莫辨同식 에 두  
리를 하니 詩計에 걸을을 하니 머지  
그 詩計와 사람의 마음을 차별해 생  
각해보았지 바람에 흘린은 잘마는

平面鏡

같이 학식법하고... 하는 고로도 있지만 고동의 품위가 뛰어난  
쳤다 늘 선포다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란 变化無常한 것이다.  
하늘처럼 변치 못한 친구가 하루 아침에 變遷하여 이별하기 찾나니 고하  
려들하며 그를 離別하고 본래의 일상 우리 생활에 수없이 많으  
고 있지만 하얗게 보면 그를 떠나는 것도 웃을 줄 알이다. 어  
제까지 아름답기 마땅한 것이 오른쪽에서 보기 싫었고 딥고  
이 험난치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모두 사랑은 離別하는  
가 아닌가 彼化無常하마음을 버리어야 한다. 離別하는 이마음은  
버리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離別하는 이마음은  
다시 봄일까? '별별의 물은 離別한다' 유키와 가지 彼化하지 않느라온  
생물은 離別하는 것이다. 한 흘류를 헤아림으로써 말은 진리인 것 같다.

書

서 二座席에서 하친구가 「기도」  
라는 말을 물어보내자 同應하  
여튼 하려 친구들이 모두 들을  
已流의 名解(?)의 속의를  
보여주어서 이 「기도」를 「解釋」  
等 무려 八가지로 解釋하는데  
로 되었는 이야기가 있다 以外의  
의 解釋이 へ種이 아니라 書體이  
一 치각기 名著의 等解釋을 主張  
하니 「여」 이후의 어느 것하나도 그 解釋  
總對性을 要求할수는 없는 것이다  
一座號이 모두 信奉하는데 「기도」를  
로 解釋지 않았단 데서 非難방을  
소음도 없었 것이다 그린데 이 데다  
이를 지목한 等對性이 總對性을  
본 데서 온갖 互對相對이 있다  
것은 삼가 등급제이다 그린데도  
相對을 摂總키 說서는 不免全般  
를 男女平等對性으로 카포금지하  
는 이 같은 絶對口才 이론수 理  
구 기록하 人間이어서!

수  
舍  
日

물방이 풍아 그거리를 거르고 있음때 누구인가 내기  
로운다 당신은 「이야기」 활을 이나고의 면  
면 로맨스 보리도 「이야기」 같은것이 없으며 세상은  
설마 쓸쓸 할까

나는 부모들이 더욱 좋아하는 나고 군려다가 바친시들의 情意가 재우나  
얼을 떠맡았을때 이야기로 젖을 물고하고 산으며서도 모를듯시이 그 「이야  
기」 페두리속에 친는 그를 當屬해야 함으로 ..... 이미 이야기를 풀내고 회  
술사이로 사라지는 그 페장한 사람의 틀을 바리면서 나는 나의 「이야기」  
를 헤며한 관심이 생겨졌다 난 그 「이야기」 틀과 나의 「이야기」 틀  
고 사람들이 퍼오릅니다 난 그 「이야기」 틀을 이야기하는 사람 言者를 話를 말하  
는 사람 語者(語者) 틀을 주로 선나게 펼쳐서 사람의 外感을 要解를 풀보  
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形而外의 感應에서 보다도 영국적 真理를 수없이  
알게되는 極端의 格言들이 데 우린 人生의 智慧가 되리는 실제적인 몇  
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또 여기 색으로 솔음을 발전된다 래 그리스도  
와의 이야기 —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르기로 누군가 나를 위해 청할 거 같  
으로 기도해 줄때 오는 마음의 慷慨는 그리스도께서 주신은 삶을 고개한  
때 그 삶을 통해 내 마음에 용소증기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  
을 풀어내며 직접 그리스도와 「이야기」 하려할때 나는 멀리 떠나 있고 끝이 부  
모님을 다시 빙은듯 밤길고 서려운 눈물에 뺨을 쳐심고다  
이렇게 나의 智慧의 「이야기」 틀은 나에게서 절절 시간을 고스란히 빼  
앗아 가거나 굽이치 않으면 당시간의 그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  
니

정말은 겸은 雜志들이 著者들이 차돌에 헤게 뿐나는 글이 나를  
웃겼습니다 나는 그 글들을 봐요 「당신은 「이야기」를 하실 줄 아십니까? 그  
전에 이야기를 풀어 하시겠구나」 라고 둘이면서 아까의 그 괜한 사람  
이다 우리는 智慧를 認解하는가 굽마는 智慧가 되는것이지 어떤가면 신령히 놀라  
있고 우리는 智慧가 認解하는가? 또한 궁금하게 놀라 해보지 않겠는가?  
우리 智慧의 認解는가 굽마는 智慧가 되는것이지 어떤가면 신령히 놀라

## 久の君의 誠意

5. 7.

聖教長 師先生이 가끔 서문에는 認解가 없던가 하면  
즉 우리 人道에게는 認解이 있는 것�이 있다. 그들이 그 認解하는데  
는 우리 聖教員이 차해서 가장 적절하 란이로 표현할 수 있다. 每  
며 또한 누구든지 聖教員인 경우에는 自己의 認解를 달  
여 꾹 強調할 뿐만 아니라 認解가 친한 경이니 이것은 마  
치 한 國家民族의 認解와 거이 같다고 할것이다. 또한 아울러 認解  
를 認解에 따른에서도 認解가 친한 경이니 여기에서 이 認解의  
眞正한 認解를 갖고 行為으로서 보다 그 結果를 얻  
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당하는 事이다. 우린 之者 人道의  
眞正한 認解와 거이 같다고 할것이다. 여기에서 이 認解의  
眞正한 認解를 각인 사람들을 當屬할 수 있다. 認解의 没有 認解가  
있는것인가? 마치 그런 종류의 認解를 가진 사람은 鉄面인  
인간이어서 품성 능이 거슬린다. 같은 認解를 가진 분들이 이토록  
인간도 나온것은 千萬이므로 生生하기에는 벌써나 비겁한 것  
이다. 우리 人道의 認解를 이원화하고 하면 더럽게 더운 認解를 한다.

# R 虛

지금은 虛無의 慶應입니다

온갖 가언 친별들이 기쁠 때 이별들 노래  
하고 원통니다 계수나무 그림자가 유풍  
비 은연히 비단은 듯 육설(虛隱)들의 노

불전 아름답게 그려지니 봄의 그 풍경  
이런 밤에는 그려운지 그 속과 맞아 그  
여의 속에서 불편하고 삶은 빙어가서 그  
는 이 聰闊 邊境 生處하며 봄을 불렀습니다

R兄! 그건 거가 남조의 경향을 담백이

은 어느 해변가에서 보은 밤색기로 著은  
하나님을 믿고 있느라 하니라 舊羅刹 봇

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烈은 바래서는 땅  
되고 또 바래지 않겠지 땅 그것을 바래는

미시 君의 말들이 벌써 성기드겠지 야. 하

실 굴풀 첫사랑의 산처럼 봄과 같

겠지를 암릅니다

R兄! 진드기의 말대로 고독과 우울과

반민을 찾았던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도 못하는 낙악

한 이가입니다 불행한 間接에 가득 차서  
이것은 고독을 버리고 웃을려고 합니다 그

이 적의 반민의 하니이기도 모를까요니다

이제 하면서도 서약하기 적이 없는 명멸해를 흘려와 보  
마조(麻鳩子)하고 虛無하면서도 틀리든 것 모르는 것  
특정이나 전통이나 우주의 常理이면서도 스라치거나  
感情에서 그대로 보다 나의 「제가 되었으면」 것인  
것이 아니어서 그만이 범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절들이 저

기 반복하는 암회고 또 반복해 암회고 있는 저입니다  
그들이 저에게는 암회고 또 반복해 암회고 있는 저입니다  
인가 봅니다

R兄! 저는 저의 둘이 菩提의 삶이지 기쁠 줄 알지  
드물게 그 또한 저의 성품과 電氣가 하나님의 優  
선인가 分外物의 지장이지 그것조차 모릅니다 다만  
저리는 菩提가 저의 電氣로 저의 身體가 하나님의 優  
선을 살피었을 뿐입니다 이런 가련한 菩提의 몸을  
이 肉體에 不信任의 화장을 입지 않고 肉體는 성호에게는  
反覆의 철학트드 이런 한정은 菩提를 모르고 암회고  
합니다

R兄! 虛無 누구에게도 말못할 이련한 身體의 서  
로운 세계가 암다는 것도 소홀하지 아니의 菩提이기  
도 모를 줄입니다 청진호에 차한 고마니 청진호에 차한 봄  
도 그리고 암희의 철학하고도 하그 봄 生을 生할 때  
마다 차는 고독과 우울을 뒤집습니다 이처럼 암희의  
되고 그들을 없애는 가지 좋은 가진이 영합니다 그러나  
또 빛나면 고독과 우울도 거제로 차서는 꽃같이 학교에서  
생기면 봄입니다 지금 세상은 저의 고독과 우울한 봄  
한 이가입니다 불행한 間接에 가득 차서  
가며 모든 이웃에게 웃음을 뺏았습니다 봄은 나쁜 봄

R兄! 虚無의 虚無이니 虚無입니다 저의 身體의  
한가하고 난생처음 아파야 하는 걸까요나  
虚無(虛無) 속은 虚無하고 虚無로 虚無  
되면서 신경입니다

R兄! 虚無의 虚無이니 虚無입니다 저의 身體의  
한가하고 난생처음 아파야 하는 걸까요나  
虚無(虛無) 속은 虚無하고 虚無로 虚無  
되면서 신경입니다

이 유품에도 이와 조각지와  
동일한 웃이면 진짜를 말씀드린  
데 하면서 悲愴한 삶의 화장을  
거 보겠습니다 일월마자 누가 머자  
는 걸까요

R兄! 지금은 그처럼 虚無를 품  
는 봄들이 정성스러운 숨에서 봄  
다 광종도 풀린 들판 두루를 치는  
봄니다 봄은 모든 안정한 봄  
거 보겠습니다 일월마자 누가 머자  
는 걸까요

R兄! 虚無의 虚無입니다 저의 身體의  
한가하고 난생처음 아파야 하는 걸까요나  
虚無(虛無) 속은 虚無하고 虚無로 虚無  
되면서 신경입니다

R兄! 虚無의 虚無입니다 저의 身體의  
한가하고 난생처음 아파야 하는 걸까요나  
虚無(虛無) 속은 虚無하고 虚無로 虚無  
되면서 신경입니다

# 여름을 맞아 생각나는대로

(上) 七月 己未

봄은 봄서 지나가고 높임에 新綠이 茂盛하

여름들이 熟綠이라 해보았자 벼미한것이 나에게

있을리는 蕃果까지 마흔 그래도 도앞에는 허리를  
에서 披拂하여 舒展하게 털리지는 六月初를

비단들에 이지 木石의 품 感觸을 있으랴!

三月前이림마 休憩을 反复하고 토진정으로 捷乘을 全

屡하나 산이하고 云威를 흔들 離反를하고 教誨의

진주지친 遷難生活을 清算하니 逐자 黑然히 서로로

하던 그때의 心情을 다른 奧奮에 가득쳤었다. 無奮이

라고까지는 환주되었지만 釜山을 떠나고 서울로

는 그림체만 하였도 내 어린 마음에는 엇간 기쁜일이 아

나셨으리라 더욱이나 當歸을 先취나니 봐야!

그러나 空想과는 달리 서울은 매우 쓸쓸하였보다. 人影이

드문 路邊에는 廣場같은 破壊된 建物들이 암상하게 넘었

言畢 知人이라 찾성을 태야 복수가 없었다.

죽어진 街路樹를 거칠며 風雨에 살피면 나에게

釜山의 뜰을 빠다가 노숙에 머으면 그것도 寒熱之事이리라

그러나 刀耕과의 雜感을 바다 하나만의 寒暑로 것은 아니

었다 푸르렀다가 국다는 空氣의 蒸氣에서 같이

나온 듯한 몸이다

總席에 아침까지 기어진 釜山松島閣海報業  
場에서 下座籠소리와 함께 나니 K君과 같이

冊冊을 옆에 까지 松島海水浴場으로 걸려가서

그를 뒤로의 紅塵을 脱離하니 鮮美하니 鮮美하니

에 씻어버리니 그때의 電扇이 鮮美하니 鮮美하니

수없는 것이었다. 또 데우여름 일어서면 天井

이 냉은 도가니 같은 板張室에서 멀리

太平洋으로부터 밀려온 潮波가 우리를 밭으로

밀려와 바위에 부딪쳐 銀鈴으로 放하는

素數를 檳榔으로 보는 情이란 水火를

여기서서 너그롭게 펼친듯 하다

(次号 계속)

차 葉 翁

## 고식관

◎ 친 五日午前九時 Ten 이종상근에 夏病

되신은 이해영씨 別世하셨음 유가족을

유언하여 맘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 친구들에 聖靈垂福을 도우신 분들

안락경 누군가 감사드리성다

◎ 日報 第五卷는 事情의 報하여 一週일간  
뉴스 혹은 원고는 바쁘이 새끼 흘리기

提供建 주심시오

出席統計表

食	4	6	11	13	18	20	25	27	夏畢
高音	2	2	2	2	2	2	2	2	100
Soprano	8	2	2	3	3	4	4	4	41
ALTO	8	3	6	5	6	7	7	3	66
Tenor	8	3	5	3	6	4	4	3	53
Bass	10	7	8	7	9	8	9	8	79
總員	36	17	23	20	26	25	26	19	63



